

역사적 관점에서 본 기업이론의 전개과정*

여운승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교수
(yeows@email.hanyang.ac.kr)

.....

지난 50년간, 특히 최근 20년간 기업이론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고 현대기업을 둘러싼 이론적 대립도 가열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과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가정하고 있는 신고전학과 모델은 그 의미가 축소되고 1930년대를 기점으로 불완전 경쟁 및 과점이론, 경영자주의 이론 및 신제도학과 이론 등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시장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행동에 관심이 고조되어 독점적 경쟁은 물론 과점하의 기업전략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거대기업이 출현함에 따라 경영자주의 이론이 제기되었는데, 그 주요 주장은 거대기업의 소유가 분산되어 소유와 지배가 분리됨으로써 경영자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신제도학파의 기업이론은 경영자주의 이론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으며 최근 20년에 걸쳐 거래비용 경제학을 중심으로 재산권 이론, 대리인 이론 및 진화경제학 등의 입장에서 기업의 조직과 행동을 폭넓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기업에 관한 이론은 경영자주의와 이를 비판하는 신제도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두 이론은 기업을 하나의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방법론 면에서 총체주의와 개인주의적 접근방식의 선택에 차이가 있고 내용 면에서 기업을 사회적·역사적 제도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인식하는가에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기업행동에 관한 이론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한 불완전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주체로서의 기업이 합축하고 있는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경제체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제기된 기업이론들을 총체적으로 조감함으로써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1. 서 론

지난 2세기에 걸쳐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온 과정에서 선진경제의 부(富)와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점증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공정의 발전, 기술진보 및 대폭적으로 증가된 기업활동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조직의 정비와 적응 등이 그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에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대규모 자원 및 경제력을 장악하게 된 거대기업이 19

세기를 통하여 탄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거대기업들은 20세기에 도 제품과 사업의 다각화는 물론 국경을 초월하여 그들의 활동을 확장함으로써 과거의 소규모 기업의 형태와는 유사한 면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8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국 내에서는 물론 범세계적으로 활발한 기업 인수·합병(M&A)이라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기업이 상이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다수의 이해관계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조직구조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기업의 목적이 이익극대화에 있다는 단순한 가정도

훼손되었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지니고 있는 이점과 수직적 통합과 같은 문제들도 제기되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오늘날 완전경쟁이란 예외적인 시장형태로 간주되고 있는 반면, 불완전경쟁, 특히 과점(oligopoly)이 보편적 시장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구조와 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기업조직의 목적, 기능 및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작업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신고전학파의 정설이 쇠퇴함에 따라 현대 기업이론이 다양화되었지만 아직까지 통일적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여러 학파가 혼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기업과 기업의 시장환경에 관한 이론적 작업들을 추적하여 현대기업에 관한 이론적 대립을 개괄적으로 조명하여 보기로 한다.

II. 신고전학파이론 및 파생이론

1. 완전경쟁과 균형

기업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분수령을 이룬 시기는 1930년대 이었는바, 그 이전까지는 기업의 성격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¹⁾ 1930년 이전에는 완전경쟁 조건하에서 기업이 단일제품을 생산한다는 기본형태를 축으로 하는 신고

전학파의 기업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오늘날의 경제학 교재에서도 대부분 다루고 있다.

완전경쟁이론에서는 시장이 다수의 소규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기업은 이익극대화라는 단일의 합리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한 기업들은 개인이나 소수의 동업자들이 소유하여 경영하며 하나의 단순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일차원적 실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분석의 초점을 기업 자체에 두지 않고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환경에 집중한다. 완전경쟁하에서는 특정 산업에서의 다수 기업들이 시장진입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으나 다수의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의 선호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가정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출량 수준은 한계비용이 가격과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특정산업에서 이익을 놓고있다면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생산능력이 증가되며, 이에 따라 시장가격과 수익성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특정 산업에서 기업들의 수가 이익을 거두지 못하거나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있을 때 장기 균형이 달성될 것이다. 그러한 위치에서 가격은 평균생산비와 같게 될 것이다.

1930년대에 이르러 기업이나 시장에 관한 이러한 기본적 모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19세기말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50년에 걸쳐 대규모의 기업들이 출현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단순한 기업에 관한 착상은 그러한 대규모 기업들

1) 1930년대는 현대기업이론의 창시자들이 나타난 중요한 시기였다. 완전경쟁이론 대신에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독점 내지 불완전경쟁이론이 Robinson(1933)과 Chamberlin(1932)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거대기업의 출현에 따라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불가피성을 제시한 Berle와 Means(1932)의 경영자주의론이 탄생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많은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신제도학파의 원조라 할 수 있는 Coase(1937)가 기업의 성격을 재조명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Sraffa (1926)는 독점화 경향이 경쟁적 균형보다 독점적 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경쟁적 균형의 개념은 훼손되었다.

2. 시장구조의 변화와 불완전경쟁

지난 반세기에 걸쳐 기업분석에 다양한 접근방법이 시도되어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활동영역에 있는 시장환경에 관하여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경쟁적 시장에서 제품들이 이질적 성격을 띠게 되고 그러한 시장을 세분하는데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Sraffa(1926)는 어느 한 기업이 경쟁자로부터 고객들을 탈취하기 위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선택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독점적 이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었다. Robinson (1933)과 Chamberlin(1932)은 이러한 논거를 토대로 독점적 요소들이 내재되어 경쟁이 불완전하게 되는 시장들의 특성을 탐구하였다. Chamberlin은 생산자들이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시장을 조사하였다. 그러한 시장에는 독점적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는 바, 그 이유는 특정된 기업의 제품을 경쟁자가 똑같이 재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완전경쟁과 독점의 범주 내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쟁의 정도와 효과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다. 완전경쟁이론에서는 완전경쟁의 상태에서 일단 이탈하게 되면 시장효율, 따라서 후생(welfare)이 감소한다고 본다. 이러한 착상은 19세기에 나타난 독점현상에 대하여 논자들간에 위협적 요소로 보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고 미국에서는 독점금지법이 통

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론가들이 독점에 대하여 적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Schumpeter(1934)의 경우, 독점은 성장과정에서 일시적 상태임과 동시에 동태적 요인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창발적 기업이 기술진보를 이루게 되면 시장우위를 점하게 되고 그러한 우위가 일시적 독점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Kirzner(1973)는 독점이 진보의 도구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Schumpeter와 유사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 기업이 경쟁에서 기업가적 자질을 발휘하면 독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물론 여타 기업들도 동일제품을 모방할 수 있겠지만 추종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두기업이 일시적 독점을 향유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Leibenstein(1976)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경제시스템이 최대 효율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작동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X 비효율'(X-inefficiency)의 수준은 독점하에서 높다고 한다. 그러한 조직은 극대수준 이하의 노력으로 기존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변화에 저항하려 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독점하에서 고도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X 비효율의 추가비용이 고가의 형태로 고객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신맑스주의(Neo-Marxism) 입장을 취하고 있는 Baran과 Sweezy(1966)는 독점적 경쟁하에 있는 거대기업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혁신들을 이용함으로써 이윤증대를 도모하는데 매우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만일 총이윤이 사회의 경제적 잉여와 같다고

잠정적으로 가정한다면 경제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잉여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하나의 독점자본주의 법칙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명제는 이윤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통적인 맑스이론에서의 가정과 상치된다.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의 정도에 관하여 연구의 초점이 될 경우가 많았고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반복게임이론(repeated game theory)은 과점기업들이 상호간에 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담합적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이 소수의 기업들로 구성되는 시장보다 더 경쟁적일 것이라는 논리가 반드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쟁시장이론(theory of contestable markets)은 독점의 조건하에서도 시장이 경쟁적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의 독점자는 경쟁자들을 선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독점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위치에 있으려면 최소한 기술개발(R&D) 정책과 관련하여 경쟁자들과 동등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익히 알고 그의 행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현상은 현대경제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주로 시장진입에의 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ain(1956)은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과점기업들이 가격정책을 이용할 것이라는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 가격 외에도 잠재적 경쟁자가 진출하는데 대규모 자본동원이 요구되는 경우, 원료공급자를 지배하거나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기업들이 비용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경우,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원료공급자가 추가로 필요할 정도로 수요가 증가하리라고 예상될 때 그러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이 인하되지 않을 수 없음에 따라 경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등이 여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시장을 장악하는 이른바 '세계시장 과점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통신 등 첨단기술업종은 물론 자동차, 전자, 화학 및 의약품, 철강,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바²⁾, 그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개발·생산·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초대형 다국적 기업이 아니면 조달하기 어렵고, 따라서 Bain이 주장 하였던 바와 같이 자금력 때문에 과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초대형 기업들은 시장지배적 기업대열에 오르지 못하면 소멸된다는 인식하에 시장점유율 확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과점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를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80년대 이후 독점금지법 완화를 통하여 세계시장 과점화를 부추겨 왔다. 이러한 세계적 과점화 현상의 귀결이 무엇인가는 학계의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종속이론이 재조명되고 있다.

2) 세계시장의 과점화 현상은 주로 거대기업간의 국제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97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기업 인수·합병(M&A)의 총자본 규모가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며, '98년에 들어서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III. 경영자주의

현대적 기업에 대한 이론은 19세기 말 제2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화를 배경으로 전개된 경영자주의 기업이론에서 출발하여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신제도학과 이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기업을 하나의 기술적 관계(즉, 생산함수)로 상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의 기업이론과 달리, 경영자주의 이론과 앞으로 언급할 신제도학과 이론은 기업을 하나의 '제도(institution)'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현대적 기업을 주주들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적 제도로 파악하는 경영자주의 기업이론은 Veblen(1904, 1923)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본격적인 틀은 역사적으로 주식소유의 분산이 상당히 진전된 것을 배경으로 Berle와 Means(1932)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경영자주의 기업이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주장은 ① 생산단위가 개인이 아닌 거대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해 생산이 사회적 성격을 띤다는 것, ② 거대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광범위한 소유분산을 기초로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고 경영자가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경영자지배), ③ 자본주의의 필연적 경향으로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경쟁의 주요 형태가 과점적이라는 것, ④ 그러나 이같은 집중에 길항적 작용을 하는 힘도 동시에 형성된다는 것, ⑤ 거대기업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권력을

소유하는 하나의 정치적 조직이라는 것, ⑥ 경제적 조절은 시장이라는 맹목적인 힘보다 기업내부 또는 결합을 통한 기업간의 계획과 국가의 개입에 더욱 의존하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①, ②는 기업의 본질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며, ③, ④, ⑤, ⑥은 그러한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식에 관한 것이다. 기업의 본질적 변화와 관련하여 경영자주의에서는 기업이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영자주의에서는 인간이 희소성의 제약 아래 자신의 선호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경제적 인간(economic man)'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조직적 인간(organization man)'으로 상정된다. 따라서 개인적 가치보다는 조직적·사회적 가치가 더 중시된다. 이와 같이 기업조직의 본질적 내지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둔 경영자주의이론은 시장과 기업이 무언가 다른 제도라는 인식을 환기시킴으로써 기업조직 자체를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중요한 한 연구대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이론 자체의 발전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³⁾

1. 소유권과 목적에 따른 경영관리 모델

기업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Berle와 Means(1932)의 독창적인 연구에서는 기업이 성장함에

3) 예컨대 거래비용에 입각한 기업이론을 발전시킨 Williamson(1963)의 경우 경영자의 재량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출발하였고, 대리인 이론은 소유와 지배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경영자주의 기업이론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Jensen and Meckling 1976, p. 309), 재산권 이론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묶음으로 재산권을 이해함으로써 재산권 내부의 분열이라는 경영자주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제도학과에 속하는 이러한 이론들 외에도 Simon(1959) 및 Cyert와 March(1963)를 중심으로 한 행태주의도 경영자의 행동이 이익극대화 가정과 다르다는 경영자주의 주장을 수용하는 가운데 발전한 것이다.

따라 소유와 지배가 발전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분리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 바 있다. 현대적 거대기업의 출현과 이에 따른 부(富)의 집중은 수많은 투자자들에 의한 자본형성으로 가능하였으며, 거대한 조직과 자원을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소유자들이 모두 기업경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경영권을 위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이 소유 및 위험과 지배가 분리됨으로써 기업의 성격이 급격히 바뀌었는 바, 그 이유는 두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경우에 따라 극히 대립적일 수도 있었다. 주주가 소액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합당한 위험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기업경영의 영속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이익의 많은 부분이 배당금의 형태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Berle and Means, 1932, p. 114). 그러나 주주는 그러한 전략을 기업에 강요할 수 있는 지배권을 대부분 상실하였다. 이러한 지배권은 경영자들에게 이전되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과 목표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목표와 전략은 주주의 것과 상치될 가능성이 많다.

경영자와 주주의 기능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동시에 분리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경영자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전략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영관리 모델들이 출현하였다. 그러한 모델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판매극대화 모델로서 이것은 경영자들이 이익극대화 보다는 판매극대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Baumol (1959)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논거를 들

고 있다. 즉, 경영자들의 수입은 이익보다는 판매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며, 사업이 확장되고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및 종업원들과 원만한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판매증가는 기업의 경쟁적 입지를 강화하여 경영자들의 권위를 높이고 그들에 대한 보상이 증가되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장기적으로 판매를 극대화하려고 하며 이익창출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한 전략의 주요 내생적 부분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장기적 이익극대화는 장기적 판매극대화 전략과 반드시 모순되지는 않는다.

경영자들이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은 제품수요의 증가율과 자본공급의 성장률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최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Marris(1964)는 주주들의 효용함수가 자본공급 증가율에서 도출되는 반면, 경영자들에게 적절한 효용함수는 직업안정의 확보가 필요한 제약조건하에서 수요증가로부터 도출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수요증가율과 자본공급 증가율이 같게 될 때, 균형이 이루어지고 최대 성장도 달성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서는 소유자들과 경영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하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몇 가지 엄밀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Williamson(1986)도 경영자 집단의 행동을 극대화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그들의 효용함수를 강조한다. 그는 경영자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보수, 사회적 지위, 권위 및 안전 등을 지향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익창출은 그들의 해고에 대한 방지책이며, 경영자집단은 자신들을 위한 비용지출에 우선순위를 둬으로써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부는 그들의 수당으로 이전될 것이다.

다른 한편, Fama와 Miller(1972)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고 자본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는 가정

이 주어질 때, 경영자의 목적이 기업의 현재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주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장가치 모델에서는 여러 대안적 투자기회들간에 위험에 차이가 있음을 수용하며,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기업 뿐 아니라 소유자가 경영하는 기업에도 이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

시장가치 모델에서는 경영자들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감독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Jensen과 Meckling(1976)은 주주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려면 비용이 소요된다는데 착안하여 대리비용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대리비용 모델(또는 대리인 이론)은 후술할 신제도학과 이론에서 다시 수용된다.

2. 행동과학에서의 모델

기업이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초기에 여러 경제학자와 경영전문가들은 경영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에 따라 신고전학파의 극대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로부터 기업에 관한 행동적 이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행동적 이론은 Simon(1959), March와 Simon(1958), 그리고 특히 Cyert와 March(1963)의 저서와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기업들이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자주 충돌되는 여러 집단들의 연합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그러한 이해관계집단으로는 경영자들과 주주들뿐만 아니라 종업원, 고객, 원료 및 부품공급자, 금융기관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각기 특유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목적은 이해관계집단의 여러 상충되는 목적들을 조정하고 타협하는데 있다. 생산, 판매, 이익규모 및 시장점유율 측면에서의 기업목표는 상위 경영층에서 결정되겠지만, 그러한 목표는 자신의 목표를 극대화하려는 하위 부서간의 교섭에 의하여 형성된다. 상위 경영층은 이와 같이 부서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가능한 한, 다수의 구체적 목표들을 충족시키려 한다. 극대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여러 하부 조직단위의 의사결정을 조정하는데 계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목표에 관한 기업의 행동은 극대화보다는 타협적 희생으로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연합의 관점은 경영사상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Mintzberg(1979) 및 Pfeffer와 Salancik(1978)은 모두 기업의 연합적 성격을 주어진 것으로 본 이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Pfeffer와 Salancik의 자원의존 모델(resource dependence model)에서는 조직을 연합구조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자신의 목적과 방향을 변동시키는 연합체로 보고 있다. Mintzberg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내부연합(하부 조직단위들간의 연합)과 외부연합(노동조합, 주주, 채권자, 원료 및 부품공급자, 정부기관 및 기타 대중 등의 이해관계자 집단들)을 구분하여 조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외부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조직의 생존이 궁극적으로 자원을 획득하고 외부연합체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은 조직의 궁극적 목적이 생존에 있고, 조직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할 의사가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연합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요컨대 자원의존 모델에서는 조직을 '조정된 행동

들의 구조물'로 보고, 조직의 궁극적 목적은 생존을 위하여 외부연합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제안한다(Pfeffer and Salancik, 1978, p. 32). 이 모델은 행동적 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적 내지 목표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연합체들이 부과하는 제약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지만,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연합체들의 요구로 해석하고 조직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IV. 신제도학과 이론

신제도학파의 기업이론은 지난 20년간 경제학과 경영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주요 패러다임(paradigm)으로 부상하여 온 거래비용 접근방법을 토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 이론은 특히 최근에 이르러 다수의 국가에서 제도적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기업을 제도(institutions)속에 내재되어 점진적으로 변화 내지 진화하는 실체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실적 가정하에서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러한 제도적 변화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에서의 계획경제 붕괴는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정부규제 완화와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새

로운 위탁경영방식의 도입, 빈번한 기업인수·합병의 발생, 활발한 경영진 인수, 다양한 기업지배방식의 탄생 등을 말한다.

이러한 신제도학파의 기업이론은 거래비용 경제학을 중심으로 재산권 경제학, 본인-대리인 이론 및 진화경제학 등의 입장에서 제도, 계약, 거래비용, 한정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기회주의,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 신뢰, 협동 및 점진적 변화 등의 핵심적 개념들이 동태적 환경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조직과 행동을 폭넓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

이 이론은 기업을 하나의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주의 이론과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방법론과 내용에 있어 극단적인 대립이 발견되는 바, 이는 **舊제도학파**와 **新제도학파**의 이론적 차이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⁵⁾ 즉, 방법론적으로 볼 때, 경영자주의 이론은 총체주의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반면에 신제도학파에서는 개인주의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고, 내용면에서 경영자주의 이론은 기업을 사회적·역사적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신제도학파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⁶⁾ 이하에서는 이러한 신제도학파의 기업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4) 신제도학파의 기업이론에 관하여 최근 동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논문으로 김석용(1996)을 참조. 거래비용이론, 재산권이론, 본인-대리인 이론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합적으로 다룬 문헌으로 여운승(1998)을 참조.

5) 구제도학파와 신제도학파의 차이에 대해서는 Hodgson(1989)을 참조. 신제도학파의 경제학에 관한 경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①거래비용이론과 재산권 이론, ② 신정치경제학과 공공선택이론, ③ North류의 계량경제사, ④ 인식(cognition), 이데올로기, 경로의존이론 등으로 집약된다(Drobak and Nye, 1996, Introduction).

6) 신제도학파 이론이 지니고 있는 역설은 그것이 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구별되는 제도의 독자적인 이론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신제도학파는 이러한 점에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고전학파의 가정들을 그 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현상들에게까지 적용한다거나, 지금까지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 다른 사회과학 고유의 분석대상이었던 사회적 제도에까지 확장해 적용한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을 식민지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Fine, 1996).

1. 조직과 구조

행동적 이론을 포함하여 경영자주의 이론에서 반영되었던 바와 같이, 기업이 상이한 목적을 지닌 이해관계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완전경쟁하에서의 단순한 이익극대화 가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을 '계약집합체(nexus of contracts)'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 Coase(1937, 1993)에 의하여 제기되어 기업의 성격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쟁적 시장에서는 자원배분과 가격수준이 모두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Coase는 대기업이 자체의 틀 내에서 자원을 조정하고 배분하려하며 따라서 시장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시장이 작동하려면 비용이 소요되며,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여 자원을 관리할 권한을 '기업가(entrepreneur)'에게 부여함으로써 어떤 시장비용은 절약된다. 기업가는 그가 대체할 수 있는 시장거래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생산요소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이유는 그가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공개시장으로 복귀될 수 있기 때문이다'(Coase, 1937, p. 386). 따라서 기업은 자원이 배분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시장을 대치하는 장치로 나타나게 된다.

기업을 이러한 방식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조직적 특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Coase가 제시한 기업의 개념은 사실상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신고전 경제학의 이론적 틀에 맞추기가 적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래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탐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거래비용이론에 관한 최근의 연구물들은 Coase의 논문에 직접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기업이란 단순히 생산함수가 아닌 하나의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로 인식된다. 사실상 기업과 시장은 모두 거래비용(즉, 경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절약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하나의 지배구조로 정의된다.

이 모델은 Williamson이 주도하여 개척되어 왔다. 이 모델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이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제한적 내지 한정적이고, 따라서 전략적 계획수립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나 집단 모두가 기회주의적이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행동에 관한 이 두 가지 기본적 전제는 기업을 조직하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정된 합리성을 토대로 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기회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래를 조직하라. 이러한 진술은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명제 이상의 폭넓은 경제적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Williamson, 1985, p. 32)

시장을 내부화하려는 기업들은 고도의 자산 특수성(asset specificity)을 지니고 있는(즉 공장이나 기계와 같은 투자자산이 다른 용도로나 형태로 쉽사리 변경될 수 없는) 기업들일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요소시장을 내부화하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내부화의 핵심적 요소로서 생산, 마케팅 및 연구개발분야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지식전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부화의 또 다른 예로는 기업간의 계약관계가 통일적 소유로 대치되거나, 외부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시장을 새로 창출하

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을 내부화 할 경우의 이점으로는 (특히 필수적인 투입물과 관련하여) 생산의 계획과 통제능력의 향상, 가격차별화를 통한 시장지배력의 이용,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용, 정보의 이전에 있어 쌍무시장(bilateral market)과 불확실성의 회피 등이 있다(Buckley and Casson, 1985, p. 10)

내부화 이론이 개발되기 이전에 수직적 통합의 정당성은 주로 기술경제(technological economy)의 달성에 그 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비용이론이 등장하면서 장기계약의 내부화 중요성, 중간재 시장에서 공급독점을 보유하고 있는 이점, 품질관리, 이전가격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기업은 기술적 논거와 계약상의 논거를 모두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후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직적 통합은 내부화 과정의 주요 기본적 특징이다.

기업조직에 관한 Williamson의 연구는 지배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또 하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정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개념은 확장 중에 있는 기업이 업무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조직단위간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전하는데 곤경에 봉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보다 많은 계층조직이 필요하겠지만, 계층조직의 수가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최고경영층이 효과적으로 행사할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이다(Williamson, 1986, p. 35; Williamson, 1985, p. 134). Williamson은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19세기 미국에서 출현한 거대 기업에 관한 Chandler의 연구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Chandler는 기업행동에 관한 이론탐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유일한 경영사가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Chandler(1977)는 기업발전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있어 내부화의 이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한 U형(U-form) 및 중앙집권적 조직에서 내부화에서 결과하는 계층조직은 최고경영층의 지배력 상실을 초래함을 발견하였다.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합리성의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해결책은 M형(M-form) 조직에서 찾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조직에서는 그 활동을 상위경영층의 감독을 받는 다수의 준자율적 부문에 분산시키며, 상위경영층은 전략적 계획수립, 업적감독, 그리고 자원배분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한정된 합리성을 아끼고 기회주의의 위협을 약화시키는데 적합하다. '일상적 경영의사결정은 최고경영층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위조직에서 내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의사소통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전략적 의사결정은 기업본부에서 보유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배분과정에서 정치적 흥정이 개입될 여지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통상 기업본부에서 보유하는 내부감사(internal audit)와 통제 기법은 정보의 과부하(overloading)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며, 일상적 작업에 통제를 가할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Williamson, 1975, pp. 137~8).

다른 한편 한정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행동을 전제로 하는 거래비용이론은 근래에 이르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정된 합리성을 가정하지만 기회주의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자원기반의 기업이론(resource-based theory of the firm)'을 들 수 있다(Conner and Prahalad, 1996).

이것은 개인들이 협동하게 되는 조직양식이 기업

활동에 적용하는 그들의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다. 예컨대 Y와 Z는 한 기업 내에서 피고용자로 함께 일하던가, 아니면 독자적인 하청업자로 동일한 과업을 수행할 것인가의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선택사항에는 영향을 미칠 지식(따라서 그들의 공동생산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Y와 Z가 각기 상이한 경험과 통찰력, 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단순한 가정에 달려있다.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은 사전에 이전시키기 어려운 노하우의 대표적 예에 속한다(Nonaka, 1994). 영향을 미치게 될 지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일단 예견되면 조직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이론은 기회주의를 토대로 하는 거래비용이론에 비하여 기업의 존재이유에 관한 별도의 보완적 해답을 제시하려 한다.

문헌에서 점차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지식기반의 기업이론(knowledge-based theory of the firm)은 자원기반의 관점을 대표하는 핵심요소이다. 자원기반의 기업이론을 다루고 있는 전략경영에 관한 문헌에서 중심되는 주제는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 경쟁에서 비교우위의 기본원천이라는 점이다. 기업에 관한 자원기반 이론은 일반적으로 지식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기업간의 업적차이를 밝히려 한다(Chen, 1996; Winter, 1995). 따라서 자원기반의 기업이론은 지식을 토대로 하는 관점을 수반한다.⁷⁾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회주의적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으나(Alchian and Demsetz, 1972; Williamson, 1975, 1985; Klein et al., 1978; Grossman

and Hart, 1986; Demsetz, 1997), 자원기반의 기업이론에서는 의도적 속임수나 정보의 은폐와 같은 위협보다 개인간의 축약불가능한 지식차이로 기업의 형성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또한 개인의 행동에 있어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지만(한정된 합리성) 기회주의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이론의 독자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조직과 시장계약의 두 가지 조직양식 중 어느 것이 보다 귀중한 지식을 적용하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려 한다. 어떠한 조직양식을 택하게 될 것인가를 자원을 토대로 예측하여 기회주의에 기초한 거래비용 접근방법과 비교함으로써 기회주의보다는 지식기반이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원기반의 기업이론은 기업간의 업적차이에 관한 이론을 일반화시킬 수 있고, 수직적 통합 자체도 지식의 차이를 토대로 논거가 제시될 수 있다.

2. 기업구조의 변화와 성장

지난 2세기에 걸쳐 자본주의하에서의 기업들은 대폭 성장하여 규모의 증가는 물론 경제력도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의 성장을 조장하는 자극요인과 단일의 거대기업으로 생산의 집중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어떠한 경우이든 기업구조의 점진적 변화는 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Coase(1937)는 기업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① 거래의 증가에 비하여 조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거나 그러한 비용의 증가속도가 완만할 경우, ② 거래의 증가에 비하여 기업가가 실수를 범

7) 자원기반의 기업이론에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헌으로는 Cyert et al.(1993), Kogut and Zander(1992) 등이 있다.

할 확률이 적거나 그 회수의 증가가 적을 경우, ③ 대규모 기업에서 생산요소의 공급가격을 낮추거나 그러한 가격의 인상폭이 적을 경우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내부조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가의 활동에 규모에 대한 수확이 감소함으로써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고 일정한 수준의 조업을 초과하면 외부시장에 거래를 의존하게 된다고 믿었다. 20년이 지난 후 Penrose(1959)는 기업확장을 기존 자원의 효율적 이용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경영자의 능력, 제품과 요소시장을 통제하는데 따르는 문제점, 대규모로 조업하는데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의 증가 등이 기업확장에 제약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Chandler(1977)는 미국의 대기업 성장을 설명하는 가운데 내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들이 U형에서 M형 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성장의 주요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보인 바 있다. 전산업과 유통업에서는 통합으로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여 작업일정의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었고, 제조업에서는 대량생산과 수직적 통합으로 취급물량을 증가시키고 비용절감을 통하여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기업들은 고정비가 누적됨에 따라(즉 자산특수성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원료투입물과 마케팅을 통제하려 하였다. 따라서 수직적 통합에서는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을 밀접하게 연계시키려 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소위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거대기업의 출현을 부추기고 있는 국가간의 활발한 기업 인수·합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느 기업이 국내 경쟁자들과 협정을 맺지 않고 제3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카르텔(cartel)은 공동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경쟁자간에 독자성을 유지하는 협약보다 유리하지만, 두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나 쌍

방 모두가 상대방에 속임수를 씌으로써 해를 입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통합은 그러한 통합으로 규모의 경계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때 상이한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두 독점자간에 시장을 분할할 수 있는 우월한 해결책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초기의 일부 이론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내부적으로 이전가능한 비교우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것을 소유하면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데 준독점적 기회가 부여된다. '무역장벽과 현지 기업들이 그러한 비교우위를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장벽을 세운다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이용하는데 흔히 선호되고 있는 방편임을 뜻하고 있다'(Buckley and Casson, 1985, p. 4).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지니고 있는 독점적 우위의 구체적인 예로 수출비 절감, 관세회피, 저렴한 현지 노동력 이용 및 우월한 생산기법 및 경영기법의 활용 등을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발전에 관한 Dunning의 절충론은 세 가지 유형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간에 생산비에 차이가 있고 관세 및 세금 등의 차별적 조건들로 인하여 입지적 우위가 부여된다. 소유면에서의 우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경영기법 및 마케팅 능력과 함께 기업특유의 신제품과 신공정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우위는 '기본적으로 1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한 생산활동을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기업 내에서 달성할 통합의 경계를 말한다. 후자의 두 가지 우위는 다국적 기업 외부에 시장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부화되지 않을 수 없다'(Dunning et al., 1986, p. 20).

Casson(1987, p. 35)은 내부화가 소유면에서의 우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라는 Dunning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내부화가 기업의 '존재 이유'라

고 본 Coase의 견해와 상치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존재를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상이한 국가에서의 활동을 연계시키는 중간재 시장의 존재에서 나오는 순효익이 있을 경우'라고 주장하였다(Casson, 1986, p. 44). 이러한 관점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거래비용이론의 틀에 맞추어 해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기업의 거대화화 다국적화를 가능하게 만든 M형 조직의 채택과 더불어 내부화 과정의 논리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어떠한 효익을 초래하였는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많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규명한 개척자들로 상반되는 견해를 제시한 대표적인 두 명의 학자를 거명할 수 있다. 즉, Hymer(1979)는 다국적 기업이 제 3세계의 부(富)를 부유한 선진국으로 이전시키는 장치라고 주장한 반면에, Kindleberger(1969)는 다국적 기업이 국내 독점을 타파하여 경쟁을 유발시키고 정부의 시장보호노력을 좌절시킴으로써 국제경제에서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3. 기업가 및 기업가정신

기업가(entrepreneur)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관한 개념은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흔히 다루고 있으나 경제이론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기업이 비용을 극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서는 기업가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

경제발전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설명하려는 초기의 시도는 Schumpeter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

에게 있어 기업가는 균형적 활동의 순탄한 흐름을 교란시킴으로써 성장을 시도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제품을 생산하는 일,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원료를 발견하는 일, 또는 조직개편 등의 시도를 통하여 성장과 불균형을 창출한다. Schumpeter(1934, pp. 65~6)는 기업가가 전통적 관행을 탈피하여 하나의 '개인왕조(private kingdom)'를 세우기 위하여 비전(vision), 근면성 및 동기유발을 통하여 새로운 활동을 전개할 특별한 자질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보았다.

기업가가 이와같이 영웅적 인물로 소개되기는 하였으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주류 이론 문헌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론가들이 불균형 또는 비효율을 인정할 경우에만 기업가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Leibenstein(1976)의 'X 비효율' 모델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최대효율 이하의 수준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최고 수준의 효율을 달성하려면 동기유발적 투입물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기업가적 기능의 개체가 요구된다. 그가 말하는 기업가는 투입물과 산출물간의 관계와 여러 내부시장간의 관계를 연계시키는데 있어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창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Leibenstein, 1968, pp. 72, 75).

오스트리아 학파의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Kirzner도 Schumpeter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과정에서 기업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론적인 면에서 견해를 달리하면서 Schumpeter가 가정하였던 바와는 정반대로 기업가의 기능이 경제를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밀어 내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경제가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 보통이며, 기업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익을 획득할 기회를 포착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가가 성공하려면 이러한 기회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이러한 경쟁이 개재되면 가격을 인하시키고 이익획득의 기회를 압박함으로써 완전경쟁에서와 같은 시장균형을 낳는다. 따라서 경쟁과 기업가정신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기업가정신과 경쟁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기업가적 활동은 항상 경쟁적이고 경쟁적 활동은 항상 기업가적이다'(Kirzner, 1973, p. 94).

Kirzner가 말하는 기업가는 시장제도 내에서 작동하는 경제시스템의 통합적 일부인 반면에, Schumpeter가 말하는 기업가는 시장제도 외부에서 파멸적 혁신을 지니고 있는 절박한 해결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가정신에 관한 Kirzner의 착상은 확고하게 개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개별 기업가정신의 요체는 그것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전개된 요소 중의 하나라기 보다는 의사결정이 배태되어 있는 경제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별도의 생산요소를 구성한다'(Kirzner, 1979, p. 181).

Kirzner는 자신과 유사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 여타 이론가들에 비해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Kirzner는 기업가들이 본질적으로 진정한 생산자로서 특수계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Knight와 Schumpeter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으나, 이익이란 예기치 않았던 변화에서 우연히 획득된다는 Knight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고 시장에서의 기회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행동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명제는 개인과 시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상 Knight가

고용계약과 위험배분을 강조하고 있고, Schumpeter가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비하여 Kirzner의 연구에서는 기업을 하나의 조직으로 탐구하는 면을 찾아볼 수 없다(Knight 1921; Kirzner, 1979).

Kirzner의 기업가정신에 관하여는 근래에 이르러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Casson은 기업가들이 시장을 창출하고 파괴한다는 점에서 Schumpeter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Schumpeter의 분석은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에 관한 우리의 개념과 일치한다. 또한 우리는 기업가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정도를 알고 있다. 기업가들은 시장, 특히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 투입물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들은 그 대신 다른 기업가들에 의하여 창출된다'(Casson, 1982, pp. 381~2). 이와는 달리 Kirzner가 말하는 기업가는 단순히 시장신호(market signal)에 반응을 보이는 존재로 인식된다. 물론 이에 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에서 기업가에 대한 연구가 장시간의 침묵을 깨고 재현된 것은 근래에 이르러 기업조직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거래비용 접근방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V. 현대기업에 대한 이론적 대립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행동에 관한 이론은 시장과 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넓게 보면 신고전학파, 경영자주의 및 신제도학파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신고전학파 이론에서의 극대화 가정은 시장 및 기업의 구조변화에 따라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현대적 기업에 대한 이론은 19세기 말 제2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화를 배경으로 탄생한 경영자주의 기업이론에서 출발하여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전개된 신제도학과 이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하에서는 기업조직의 구조적 변화라는 내적 측면과 그것이 갖는 사회적 영향이라는 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인과 경제시스템에 관하여 두 이론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업조직의 구조적 변화

경영자주의 이론에서는 기업이 다수의 주주들에 의해 소유되며 생산은 개인적 수준이 아닌 조직을 단위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또한 자본형성도 주식을 포함한 개인적 부(富)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직적 차원의 내부유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에서 사기업(private corporation)이라기 보다는 준공기업(quasi-public corporation)이 된다. 여기에서 경영자주의는 거대기업이 소유자가 아니라 경영자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본다.⁸⁾ 이러한 변화는 주식소유의 광범위한 분산에 의해 촉발되며, 주식소유의 분산은 주주들의 실질

적 권리행사를 어렵게 해 법적인 소유권과 기업을 지배하는 권리 사이의 분열을 야기하고, 따라서 기업의 실질적 지배는 지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경영자들에 의해 장악된다는 것이다.⁹⁾

한편 Berle와 Means에 의하면 경영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순수한 중립적 기술관료'로서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반된 목적을 갖는다. 대립되는 이 두 가지 행동원리 가운데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경영자주의는 이론적으로 '분파적'(sectional) 및 '비분파적' 경영자주의로 분열된다.¹⁰⁾ Berle와 Means를 포함한 경영자주의의 분류는 비분파적 입장을 견지하여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현대적 기업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고전적 기업과는 달리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인정된다. 그리고 현대적 기업은 시장이라는 맹목적인 힘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규제되는 바, 이는 기업의 양심(Berle), 기업의 이해와 사회적 이해의 일치(Drucker), 권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공공정책(Galbraith)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Bowman & Bowman 1996, pp. 228-9). 반면에 분파적 경영자주의는 경영자 역시 개인으로서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 신제도학

8) 경영자지배에 의한 경영자 자본주의의 성립여부가 제2차 산업혁명 이후 각국간의 경제적 성과에 결정적 차이를 가져왔다는 대표적 연구로 Chandler(1990)와 Lazonick(1991)이 있다.

9) Berle와 Means(1932)는 주식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자본규모의 거대성 이외에는 별다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가 주식소유의 분산을 야기한다는 논리적·역사적 인과관계는 반드시 성립하지 않으며, 거대 기업의 경우 주식시장보다 주로 내부에 축적된 자본에 의해 성장을 지속한다는 경영자주의의 다른 주장과도 모순된다. Lazonick(1992, pp. 449-51)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9세기 말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존의 소유자들이 경영에서 분리되고, 이를 매개한 주식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식소유의 분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 거대 기업의 영속성이 인정되면서 주식이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잡은 데서도 그 원인을 찾고 있다.

10) 분파적 경영자주의의 대표적인 예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판매극대화를 기업의 목적으로 주장하는 Baumol(1959), 성장극대화를 주장하는 Marris(1964), 지출극대화를 목적으로 주장하는 Williamson(1963) 등이 있다.

과 이론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된다.

Chandler(1992)와 Lazonick(1991)은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적 논리로부터 경영자의 역할을 도출하고 그러한 역할의 수행여부에 따라 기업의 효율성, 더 나아가 국가간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경영자주의의 분파적 대립을 해소시킨다. 그들에게 있어 기업은 생산을 둘러싼 조건을 제약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 능력을 기초로 그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존재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소유경영자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제약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 능력이다. 또한 기업의 본질이 시장조절에 의해 균형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 조절에 의해 더 큰 가치를 창조하는데 있다고 본다(Lazonick, 1991, Ch. 2). 그러므로 기업은 조직으로서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¹¹⁾

이상과 같은 경영자주의 이론에 대해 신제도학과 이론은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 반론을 제기한다. 실증적 차원에서는 소유의 분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기업행위의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¹²⁾ 이론적 차원에서는 소유분산의 필요성과 경영자의 역할을 인정하되 경영자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로 비판한다.¹³⁾ 이러한 비판은 소유와 지배의 분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입장(재산권 이론)과 분리는 인정하되 경영자의 지배에 대한 시장의 제약을 강조하는 수준에

서 타협을 하는 입장(대리인 이론 또는 대리비용 이론)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양자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신제도학과 이론은 기업을 개인의 집단으로서 하나의 제도로 본다는 점에서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다르지만, 이러한 차이는 역설적으로 제도 자체가 이기심을 추구하는 개인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고전학과를 비판한다기보다는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신고전학과와 기본적 가정(개인의 이기심 추구, 극대화, 경쟁적 시장 등의 가정)을 수용하며, 제도에 대한 설명은 기업의 이익극대화 가정을 기업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효용극대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가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뿐이다. 신제도학과 이론의 분석단위는 기업이라는 조직 자체가 아니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이다.

이러한 입장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경영자주의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이라면 조직내에서의 개인들 관계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은 개인들의 계약집합체(nexus of contracts)로 이해된다(Alchian & Demsetz, 1972).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는 원리는 시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게 되며, 조직은 시장의 균형과 마찬가지로 상호 이해관계가 다른 개인들의 계약적 관계의 균형이다(Jensen & Meckling, 1976, p. 311). 그러므로 시장이 계층조직이나 계획으로 대체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며 여전히 '보

11) 이러한 맥락에서 Chandler(1992)는 거래를 분석단위로 하고 교환과정에서 주목하는 Williamson에 대한 기존의 지지를 철회하고 기업이라는 조직과 생산측면에 관심을 두는 진화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을 지지한다고 밝힌다.

12) 신제도학과에서 소유의 분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실증적 논거는 Demsetz(1983) 참조.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의 이윤율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는 실증적 연구의 예로는 Demsetz & Lehn(1985) 참조.

13) 소유의 광범위한 분산의 필요성은 자본조달의 용이성(규모의 경제)으로, 경영자의 역할은 소유권의 효과적 사용으로 설명된다(Demsetz, 1966, p. 518).

이지 않는 손'이 주요 조절기구가 된다.¹⁴⁾

문제는 계약의 성립과 집행과정에서 정보문제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있다. 재산권 이론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어떻게 내부화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관건이 되며, 따라서 재산권의 확정이 중요하며 누가 그것을 소유하는가의 문제는 별 의미가 없다(Barzel, 1989, p. 7). 반면에 대리인 이론에서는 본인(소유자나 채권자)과 대리인(경영자)과의 관계에서 대리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며, 그러한 비용의 최소화는 지배와 경영의 분리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 행사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의 내부화나 대리비용의 최소화 노력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주요인이며, 이러한 점에서 경영자주의 이론에서 경영자 지배에 근거한 현대적 기업이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소유지배구조 가운데 선택가능한 하나의 대안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된다.

다른 한편 재산권 거래에는 일정한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바, 재산권의 묶음이 다기화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더 많은 개인들에게 배분되어 있을수록 거래비용은 증가하며, 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어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욕구도 감소한다. 이때 대리비용이 더 소모됨은 당연하다. 따라서 신제도학과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유가 분산된 것이 집중된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총체적 효율성은 소유분산이 가져올 이익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즉, 소유가 분산되고 경영자가 지배할 때 얻게 되는 이익(즉, 위험의 분산에 따른 자본조달의 용이성, 경영자의 전문적 지식, 규모의 경제 등)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소유분산과 경영자지배가 효율적인가의 여부는 논리적 차원에서 판단될 수 없으며,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그러한 결론이 지지된다. 그러나 실증적 차원의 결론이 경영자주의 이론을 무력화시킨다 하더라도 소유집중이나 주주의 권리회복 등이 바람직하다는 적극적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거대기업의 조직능력과 과점적 경쟁으로의 시장 구조 변화는 기업이 어떤 제약하에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약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재설정함으로써, 이러한 힘은 경제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따라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영역까지 침범할 위험을 갖는다. 경영자주의 이론에서는 경제력 집중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에서 필연적 현상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된다고 본다. 그 결과 경쟁이 과점형태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생산은 맹목적 경제적 힘이 아니라 권력을 장악한 소수 개인들에 의해 의식적으로 지배된다. 거대기업은 권력 소유자로서 국가와 함께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치조직이다. Galbraith(1973, p. 6)에 의하면, '현대적 기업이 시장에 대한 권력, 공동체에 대한 권력, 국가에 대한 권력, 신념에 대한 권력을 획득

14) 시장이 다른 제도에 의해 대체된다는 것은 자원배분이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가치이론인 가격이론에 따라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을 대체하는 조직에 대한 부정은 가격이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론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설명하는 것이 신제도학과 이론에서는 중요한 과제가 되며 이러한 시도로 Demsetz(1988, 1997)를 들 수 있다.

했을 때, 그것은 형태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국가와 같은 정치적 도구가 된다.'

여기에서 문제는 어떠한 권력이든 그 집중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대기업의 권력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자유주의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이는 경영자주의가 개인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한 근본적으로 불가피한 문제이며, 동시에 경제력 집중은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어 역으로 개인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한 해결은 법적으로 주식회사의 인격화(법인화)와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수정으로 나타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서 출현한 기업자유주의(corporate liberalism)는 바로 이를 지칭한다.

이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자리에 기업을 대치시키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에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기업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로부터 비롯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 것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자본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그 이유는 거대기업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특히 자유시장주의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기업의 이익극대화 행위가 사회적 선(善)을 자동적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하는 규제와 길항력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Bowman & Bowman, 1996, Ch.1, 2). 따라서 경제력 집중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시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게 되며, 반대로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가의 개입

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Reisman, 1980, p. 56).

신제도학과 이론은 이러한 경영자주의 이론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재산권의 확립과 시장의 강화라는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역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선(善)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Friedman(1962, Ch. 8)의 글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는 기업이 이익추구를 통하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쟁의 존재속에서 사회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독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독점을 인정하여 자유사회를 파괴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3. 경제시스템에 대한 대립

현대적 거대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나 역할을 고려할 때, 경제시스템을 둘러싼 경영자주의 이론과 신제도학과 이론간의 대립은 국가개입에 대한 입장의 차이와 시장과 조직의 역할에 대한 시각 차이로 나타난다. 국가개입의 경우, 경영자주의 이론에서는 독점에 대한 규제 외에도 조세부과, 최저임금 및 인종과 성별 차별금지를 포함한 노동관계의 개입 등을 인정하고 있다(Berle, 1932, pp. x x viii ~ x x xi). 또한 Galbraith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비의 개인적 성격간에 모순이 발생하여 공공투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저축이 기업의 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투자는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소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거대기업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양자의 균형을

도모하는 총수요관리정책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Bowman & Bowman, 1996, p. 219).

이러한 주장은 신제도학과 이론의 이념적 기저를 형성한 논자들에 의하여 비판되었다. 예컨대 Becker(1957)는 인종별, 성별 차별금지를 비금전적 소비형태로서 경영자의 효용함수에 포함시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였으며, Friedman(1962, Ch. 7)은 그러한 차별금지가 국가의 개입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자주의와 신제도학과의 근본적 대립은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적 조절자로서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의 문제로 나타난다. 경영자주의에서는 시장이 더 이상 경쟁적이지 않다는 점(시장의 과점화)에서 시장규율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업내부의 계획과 기업간의 결합 등에 의한 계획적 조절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또한 조직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은 기술발전의 요구에 따른 역사적 필연성으로 설명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조직내부의 구조적 변화와 조직능력의 배양을 통해 이러한 기술반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¹⁵⁾

경영자주의 이론의 주장에 대하여 신제도학과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에 의한 조직의 비효율성에 비판의 중점을 둔다. Jensen(1989)은 미국경제가 1970~80년대에 약화된 원인을 기업의 지나친 거대화(conglomerate)와 그것의 비효율적 경영에서 찾는다. 그는 기업거대화의 원인이 경영자의 재량권에 의한 이익의 내부유보와 처분에 있다고 본다. 그는 자유현금흐름(free cash flow)이라는 개념으

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 바, 이것은 자본비용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순가치가 정(+)이 되어 투자액을 초과하는 현금수입을 말한다. 이것이 배당되지 않고 유보될 경우 자기 업종보다는 다른 업종의 기업을 인수하는데 투자하기 쉽다. 이러한 경향은 경영자가 지배하는 기업에서 배당유인이 적을 경우에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자유현금흐름이 주주들에게 완전히 배당되어 주식시장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의 전제조건은 주주의 권한회복이다.

이와는 달리 Lazonick(1992)은 경영자주의의 입장에서 미국기업들이 거대화를 통해 부실화된 것은 산업금융비용의 상승과 주식보유에 의한 경영자의 소유자화(所有者化)에 원인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장기적 투자유인이 감소되어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는 또한 기업 인수·합병(M&A)이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한다. 기업 인수·합병은 주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이고 기술발달이 점진적인 산업에 집중되는 바, 이러한 산업은 Jensen이 말하는 자유현금흐름이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인수·합병으로 실현된 이익은 이들 산업의 조직역량을 배양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유보한 투자재원을 잠식한다고 Lazonick은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소유자보다 기술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자가 지배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면에서 바람직하며, 현대적 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로서의 경영자 역할이 불가결하다는 경영자주의 이론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Veblen, 1904; Galbraith,

15) 예컨대 Chandler(1990)는 2차 산업혁명 이후의 현대적 기술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갖는 바, 이를 수취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조직구조를 보유하는 기업만이 성공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는 영국(개인자본주의), 미국(경영자본주의), 독일(집단지본주의)이 각기 상이한 성과를 나타낸 이유를 보임으로써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1974; Chandler, 1990).

다른 한편 Jensen(1993)은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제 2차 산업혁명에서는 19세기 말의 인수·합병 붐을 통하여 각각 과잉생산능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시장을 통하여 한계기업이 퇴출됨으로써 과잉생산능력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은 과잉생산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실물시장의 규율보다 효과적이다.

과잉생산과 같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하여 경영자주의 이론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19세기말부터 되풀이된 경제공황과 같은 위기의 원인이 자유경쟁에 기인한 과잉생산으로 인식되면서 자유경쟁은 선(善)이 아니라 악(惡)으로 인식되었다. 그 대안은 거대기업에 의한 계획과 거대기업간 결합이었다(Campbell, 1993, p. 118). 결국 생산이 맹목적인 경제적인 힘이 아니라 소수의 개인에 의해 지배되고 사회도 통제된다고 파악하고 거대기업의 필연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논거는 경영자주의의 옹호자인 Galbraith나 Drucker 등에 의해서도 계승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자주의와 신제도학파의 대립은 단순히 기업이론이라는 차원을 떠나 경제체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립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규율자 역할을 누가 수행하는가(즉 시장인가 조직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이데올로기 문제도 개재되기 때문에 양자에 대한 비판과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VI. 맺는 말

지난 50년간, 특히 최근 20년에 걸쳐 기업행동과 시장을 다룬 이론들이 크게 양산되고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현대적 기업을 둘러싼 이론적 대립도 가열되고 있다.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되는 완전경쟁시장은 그 의미가 축소되어 예외적인 사례로 간주되었다. 1930년대를 기점으로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완전경쟁 및 과점이론의 대두, 거대기업의 출현에 따라 소유와 지배의 분리를 내세워 경영자 지배를 주장한 경영자주의 이론의 탄생, 그리고 최근에 부각된 거래비용이론을 중심으로 한 신제도학파의 태동 등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다.

시장구조의 변화에 조용하는 기업행동에 관심이 고조되어 독점적 경쟁은 물론 현대경제에 공통적 시장형태로 언급되는 과점현상하의 기업전략에 관하여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여러 유형의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에 연구의 초점이 될 경우가 많았다. 반복게임이론이나 경쟁시장이론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그러나 어떠한 유형의 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하든간에 그 정도는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따라서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이론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시장구조가 완전경쟁보다는 불완전경쟁 및 독점과 과점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역으로 기업이 대규모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거대기업이 출현함에 따라 경영자주의 이론이 제기되었는 바, 그 주요 주장은 거대기업의 소유가 분산되어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어 경영자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됨과 아울러 경쟁의 주요 형태가 과점적이며, 거대기업은 국

가와 마찬가지로 권력을 소유하는 하나의 정치조직이고, 경제적 조절은 시장보다도 기업의 계획과 기업간의 결합, 그리고 국가개입에 더욱 의존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신고전학파에서 가정하고 있는 이익극대화가 아닌 다수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경영자주의 이론은 행동주의에 영향을 미친다.

신제도학파의 기업이론은 경영자주의 이론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으며 거래비용 경제학을 중심으로 재산권 이론, 대리인 이론 및 진화경제학 등의 입장에서 제도, 계약, 거래비용, 한정된 합리성, 점진적 변화, 기회주의, 지배구조, 신뢰, 협동 등의 핵심적 개념들이 동태적 환경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조직과 행동을 폭넓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제도학파 이론은 내부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한계 극복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업의 다국적화도 동일한 논리로 설명한다. 요컨대 기업을 상이한 목적을 지닌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인식하고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따라 조직의 성격과 기업의 거대화와 다국적화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 또한 거래비용이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현대기업에 관한 이론은 경영자주의와 이를 비판하는 신제도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두 이론은 기업을 하나의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방법론면에서 총체주의와 개인주의적 접근방식의 선택에 차이가 있고 내용면에서 기업을 사회적·역사적 제도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인식하는가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업조직의 구조적 변화라는 내적 측면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외적 측면, 그리고 경제 시스템면에서 두 이론의 대립적 입장을 간략하게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두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를 생략하였다.

지금까지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기업행동에 관한 이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또한 불완전하다. 그렇다고 하여 기업이론에 관한 탐구가 무용하다거나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주체로서의 기업이 합축하고 있는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경제체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거래비용이론을 중심으로 기업행동에 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기업이론들을 총체적으로 조감함으로써 새로운 이론발전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석용(1996), "신제도학과적 기업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의 고찰," *경영학연구*, 제25권 1호(2월), 107-151.
- 여운승(1998), *기업이론*, 도서출판 석정.
- Alchian, A. A. and Demsetz, H. (1972),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777-95.
- Bain, J. S. (1956), *Barriers to New Competition*, Cambridge, MA
- Baran, P. A. and P. M. Sweezy (1966), *Monopoly Capital*.
- Barzel, Y. (1989), *Economic Analysis of Property Rights*, Cambridge, U. 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mol, W. J. (1959), *Business Behavior, Value and Growth*, Macmillan, New York.
- Becker, G. (1957), *Economics of Discrimina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rle, A. A. and G. C. Means (1932),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Harcourt, Brace & World, Inc., New York
- Bowman, S. S. and R. E. Bowman (1996), *The Modern Corporation and American Political Thought : Law, Power, and Ideology*, University Park, PA :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Buckley, P. J. and M. C. Casson (1985), *The Economic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 Campbell, D. (1993), 'Why Regulate the Modern Corporation? The Failure of 'Market Failure'', in McCahery, et al.(eds), *Corporate Control and Accountability : Changing Structure and the Dynamics of Regulation*, Oxford : Clarendon Press.
- Casson, Mark C. (1982), *The Entrepreneur: An Economic Theory*. Martin Robertson, Oxford.
- _____ (1986), General Theor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 Their Relevance to Business History, in Hertner and Jones, *Multinationals : Theory and History*, Aldershot.
- _____ (1987), *The Firm and the Market: Studi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the Scope of the Firm*, Basil Blackwell, Oxford.
- Chamberlin, E. H. (1932),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Cambridge, MA.
- Chandler, A. D. (1977),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 _____ (1990), Scale and Scope: *The Dynamics of Industrial Capitalism*, Belknap/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_____ (1992), What is a Firm? A Historical Perspective, *European Economic Review*, 36, 483-94.
- Chen, M. J. (1996), 'Competitor Analysis and Inter-firm Rivalry :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 100-134.
- Coase, R.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 p. 386.
- _____ (1993), 1991 Nobel Lecture :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Production, in Williamson, O. E. and S. G. Winter(eds), *The Nature of the Firm : Origins, Evolutions, and Development*,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Conner, K. R. and C. K. Prahalad (1996), 'A Resource-based Theory of the Firm : Knowledge versus Opportunism', *Organization Science*, Vol. 7(5), September-October, 477-501.
- Cyert, R. M. and J. G. March (1963),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yert, R. M., P. Kumar and J. R. Williams (1993), 'Information, Market Imperfections and Strate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Winter Special Issue, 14, 47-58.
- Demsetz, H. (1966), '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American Economic Review : Papers and Proceedings*, 2, 347-59.
- _____ (1983), 'The Structure of Ownership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375-90.
- _____ (1988), 'The Theory of the Firm Revisited',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4(1), 141-161.
- _____ (1997), *The Economics of the Business Firm*,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and K. Lehn (1985),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155-77.
- Drobak, J. N. and J. V. C. Nye(eds.) (1996), *The Frontiers of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Dunning, J. H., J. A. Cantwell and T. A. B. Corley (1986),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 Some Historical Antecedents', in P. Hertner and G. Jones(eds.), *Multinationals : Theory and History*, Aldershot.
- Fama, E. and M. H. Miller (1972), *The Theory of Finance*, Hinsdale, IL : Dryden Press.
- Fine, B. (1996), 'The New Revolution in Economics, *Capital and Class*, 61, 143-48.
- Friedman, M. (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lbraith, J. K. (1973), *Economics and the Public Purpose*, Houghton Mifflin Boston.
- _____ (1974), *The New Industrial State*,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 Grossman, S. J. and O. D. Hart (1986), 'The Costs and Benefits of Ownership : A Theory of Vertical and Lateral Inte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691-719.
- Hodgson, G. M. (1989), 'Institutional Economic Theory : The Old Versus the New', *Review of Political Economy*, 1(3), 249-69.
- Hymer, S. H. (1979),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 A Radical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nsen, M. C. (1989), 'Eclipse of the Public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67(5), 61-74.
- _____ (1993), 'The Modern Industrial Revolution, Exit, and the Failure of Internal Control System', *Journal of Finance*, 48(3), 831-80.
- Jensen, M. C. and W. H.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October), 305-360.
- Kindleberger (1969), *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CT.
- Kirzner, I. M. (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_____ (1979), *Perception, Opportunity and Profit : Studies in the Theory of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Klein, B., R. A. Crawford and A. A. Alchian (1978), 'Vertical Integration, Appropriable Rents, and the Competitive Contracting Proces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1, 297-326.
- Knight, F. H. (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Houghton Mifflin, Boston.
- Kogut, B. and U. Zander (1992), 'Knowledge of the Firm, Combinative Capabilities, and the Replication of Technology', *Organization Science*, 3, 383-97.
- Lazonick, W. (1991), *Business Organization and the Myth of the Market Economy*, Cambridge, U. 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2), 'Controlling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Managerial Capitalism',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3), 445-88.
- Leibenstein, H. (1968),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 Papers and Proceedings*, LVIII, p.67.
- _____ (1976), *Beyond Economic Man : A New Foundation for Microeconomic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March, J. G. and H. A. Simon (1958), *Organizations*, New York : John Wiley & Sons.
- Marris, R. (1964), *The Economic Theory of Managerial Capitalism*, Macmillan, London.
- Mintzberg, H. (1979), 'Organizational Power and Goals : A Skeletal Theory', in *Strategic Management*, Dan E. Schendel and Charles W. Hofer, eds.,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Nonaka, I. (1994), 'A Dynamic Theory of Organizational Knowledge Creation', *Organization Science*, 5, 14-37.

- Penrose, E. T. (1959),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Basil Blackwell,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47-78.
- Pfeffer, J. and G. R. Salancik (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New York : Harper and Row.
- Reisman, D. (1980), *Galbraith and Market Capitalism*, London : Billing and Suns.
- Robinson, J. (1933),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Simon, H. A. (1959), 'Theories of Decision Making in Economics and Behavioral Sc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49(June), 253-83.
- Sraffa, P. (1926), 'The Laws of Returns under Competitive Conditions', *Economic Journal*, Vol. 36.
- Veblen, T. (1904), *The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Charles Scribner, New York.
- _____ (1904), *Absentee Ownership*, Huebsch, New York.
- Williamson, O. E. (1963), 'Managerial Discretion and Business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1032-57.
- _____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A Study in the Economics of Internal Organization*, Free Press/Collier, New York and London.
- _____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Collier Macmillan, London.
- _____ (1986) *Economic Organisation, Firms, Markets and Policy Control*, Wheatsheaf, Brighton.
- Winter, S. G. (1995) 'Four R's of Profitability : Rents, Resources, Routines and Replication', C. A. Montgomery (ed.), *Resources-based and Evolutionary Theories of the Firm*, Boston :

The Evolution of Theory of the Firm in Historical Perspective

Woon Seung Yeo*

Abstract

For the last 50 years, particularly during the last 20 years, various theories of the business firm have appeared and theoretical disputes about the nature of modern corporation have been intensified. As the significance of the neo-classical model which assumes perfect competition and profit maximization weakened,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oligopoly which seems to describe a market form common in the modern economy, managerialism and new institutional school emerged simultaneously during the 1930s, which constituted a watershed in theoretical studies of the firm.

On the one hand, many theorist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changes of corporate behavior as a variety of market structure was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as the giant corporations emerged at the end of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some theorists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ownership had become divorced from control, generating managerialism which includes a number of managerial models of the firm.

For the last 20 years, the new institutional school attracted many social scientists' interest, which was greatly influenced by managerialism. It contains various approach such as transaction cost economics, theory of property rights, principal-agent theory and evolutionary economics, etc., explaining corporate behavior and it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 a broad perspective.

As far as theory about modern corporation is concerned, managerialism and new institutional school are known to be representative ones. Both approaches possess common factor by recognizing the firm as an 'institution'. However, while managerialism keeps wholistic position and new institutional school chooses individualistic approach in methodological aspect, the former perceives the firm as a social and historical institution

and the latter perceives it as a result of individual's rational choice in the aspect of content.

The theory of corporate behavior is more diverse, more complex, and less complete than it seemed in the past. However, by investigating the implications of theoretical nature of the existing firm in reality, a desirable economic system may be sought. In this respect, the author believes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uch system.

Key Words : Behaviorism, Dependency Theory, Managerialism, Market Value Model, Neo-classical Model, New Institutional School, Repeated Game Theory, Resource-based Theory of the Firm, Resource Dependence Model, Sales Maximization Model, Theory of Contestable Markets,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Oligopoly, Transaction Cost Theory

* Professor of Marketing,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Commerce & Economics, Hanyang University, Seongdong-Ku, Seoul, Korea, 133-791